

말씀 속에서 붙잡는 비전

잠언30:1-6, 요한계시록1:1-3

최정웅 목사님

예수님은 그리스도. 나는 하나님 자녀. 모든 문제 끝. 여러분의 기도를 느끼면서 프랑스에 잘 다녀왔다. 오늘은 말씀 속에서 붙잡는 비전이라는 주제로 잠언 29장과 30장을 묵상하도록 하겠다. 시19:9에 보면 '여호와와 말씀은 완전하여 우리의 영혼을 소생시킨다.' 말한다. 이 말씀 속에서 우리는 길을 볼 수 있고, 미래를 볼 수 있다는 말이다. 잠29장과 30장을 묵상하면서 우리가 오늘 말씀 속에서 붙잡는 비전을 우리가 깨닫게 되기를 축복한다.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개인에게 위기가 찾아올 수 있고, 가정에 또 우리가 살아가는 현장에, 국가에도 큰 위기가 올 수 있다. 그러나 성경 속 램턴트들은 그 모든 위기와 상처 속에서 무너지지 않고 오히려 그 모든 것들을 전부 발판으로 삼아서 승리했던 인물들이다. 이것이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이다.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한결같이 그들이 말씀을 붙잡았는데 말씀이 바로 언약이다. 그 언약을 붙잡았기 때문이다. 그 속에서 미래를 볼 수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승리할 수 있었다는 이야기가 바로 성경말씀이다. 요셉이 노예로 갈 때, 다윗이 사울에게 쫓겨 다닐 때, 바울이 죄수로 있을 때 낙심하지 않았다. 말씀 속에서 이 분들은 한결같이 미래를 봤기 때문이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기 때문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하나님은 오늘을 주셨는데 오늘 위에 우리가 굳게 서서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소망을 품게 되기를 축복한다.

1. 우리가 붙잡아야 할 것은 하나님의 말씀, 말씀의 능력이다. 잠29:30은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기 때문이다. 많은 부분이 있겠지만 세 가지만 찾아보려고 한다.

(1)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여호와를 알게 된다는 것이다. 잠30:4에 보니까 여호와가 어떤 분이신지를 잘 설명하고 있다. 하늘에 올라갔다가 내려온 자, 바람을 장중에 모으는 자, 물을 옷에 쓴 자, 땅에 모든 끝을 정한 자, 그가 바로 창조주이신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것이다. 사람의 지혜와 방법으로는 그의 이름이 무엇인지, 사람의 지혜와 능력으로는 그의 아들의 이름이 무엇인지 내가 알 수 있는가. 말해봐라. 말하고 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에게 하나님이 누구신지 알게 하고 하나님의 아들로 우리를 구원하실 자의 이름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신다는 것이다. 잠2:1-5을 보면 하나님의 말씀과 그 계명 속에서 경외하기를 깨달으며 하나님을 알게 된다고 말한다. 말씀을 가까이 하는 가운데 그 속에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는 우리 모두가 더 깊이 알게 되고 발견케 되기를 축복한다. 예배할 때마다 은혜 받았다고 말하지 않는가. 그 말은 내가 더 하나님을 알게 되었다. 그리스도를 더 알게 되었고, 그 사랑을 알게 되었고, 그가 베푸신 은혜를 더 깊이 알게 되었다는 말이다. 오늘도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충만하기를 축복한다.

(2) 잠30:5에 보면 '여호와를 알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다 순전하다.' 라고 말한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그를 의지하는 자의 방패가 된다고 말한다. 하나님의 말씀이 왜 순전한가. 순전케 하는 복음을 깨닫게 하기 때문이다. 우리가 붙잡는 말씀의 주제는 바로 복음이다. 말씀의 주제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다. 그러니까 복음의 내용은 예수 그리스도이다. 지금도 기억이 나. 목사고시를 준비하고 있는데 연락이 왔다. "최전도사는 전도사 시험 안 봤지?" 한다. 전도사 고시를 보라는 것이다. 목사고시를 준비하고 있어서 "저는 목사고시 준비하고 있는데요." 하니깐 그래도 보라는 것이다. 그래서 시험을 보러 갔다. 시험관이 나눠주는 문제지를 보는데, 첫 번째 문제가 '복음의 핵심을 말하라.'였다. 그 답으로 많이 설명할 수 있지만, 간단하게 '십자가와 부활' 이렇게 썼다. 이것이 복음의 핵심이다. 그런 후에는 다른 문제를 푸는데 시험관이 지나가다가 나를 짚어 치는 것이다. 보니까 시험관이 이중만 목사님이 아니다. 십자가의 피를 흘리다가 강조하고 전하는 분이시다. 전국 집회를 많이 다니신 분이시다. 그런데 지나가시다가 "자네, 그거 어떻게 알았어?" 하시면서 속삭이신다. 그래서 목사님을 쳐다보면서 "기본 아닙니까." 그렇게 이야기하니깐 그 분이 하는 말씀이, "이 사람아. 그것 모르는 사람 많아." 하는 것이다. 목사가 그것을 모르는 사람이 많다는 것이다. 전도사도 아는 것을 모른 다는 것이 말이 되는가. 아마 지나고 보니까, 이렇게 순수한 복음을 원색적으로 전해준 것이다, 나도 사실은 목사가 되어서 알았다. 누가 나한테 인생이 무엇인지, 어디서 왔는지, 어떻게 되어서 이렇게 망하게 되었는지 그 이유를 제대로 가르쳐 주지 않았다. 그것 때문에 예수님을 약속했고, 메시지를 약속했고 그 메시지가 바로 예수님이라는 것을 우리처럼 정확하게 설명해주는 사람이 없었다. 이번에 친구 목사님이 그러더라. 어떤 성도가 전도하면서 성경 공부하러 다니니까 다른 분이 '이단이야, 가지마.' 하면서 권사님이 못 가게 했다는 것이다. 그러니까 그 성도분이 '그러면 나랑 같이 가 봐요. 가서 들어보고 나서 말해요.' 그러니까 따라가서 옆에 앉아서 뭐라고 하는지 듣고 있는 것이다. 이야기를 듣다보니까 이 사람이 처음에는 그냥 무관심으로 보더니, 점점 고개를 돌리고 정확하게 듣는다는 것이다. 그래서 계속 이야기를 하고 끝나고 나니까 이렇게 말했다고 한다. '이렇게 정확하게 복음을 말하는데 왜 잘못 됐다고 이야기하냐.' 하면서 소리 질렀다고 한다. 그러면서 계속 여기 다니라고 하면서 이야기를 했다고 한다. 이번에 방탄소년단이 프랑스에 다녀왔다고 한다. 프랑스에서 전 세계 도예가들이 모였다고 한다. 같은 비행기에 개량한복을 입은 분들이 왔다 갔다 한다. 바로

내 옆에도 앉았는데, 냄새가 조금 났다. 11시간을 타기 때문에 시차적응을 하려고 계속 잠을 자다가 마지막쯤에 이야기를 건넸다. "같은 옷을 입은 분들이 몇 분 있네요." 하니깐 그렇다고 한다. "어디에 갔다 오세요?" 하니깐 도예전이 있어서 갔다 왔다고 한다. 저 분들이 명장 7분이 참여한 것이라고 한다. 이번 도예전에 많은 관람객들이 왔는데 그 관람객들이 제일 붐비는 곳이 바로 한국 가마였다고 한다. 24회 째 개최되었는데 이번엔 처음으로 한국이 참여했다고 한다. 그런데 한국 사람들이 하는 것을 보고 사람들이 너무 놀라서 계속 와서 보고 좋아했다고 한다.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 복음을 말하지 않을 수 없지 않은가. 그래서 혹시 종교를 가지고 계시냐고 물어보니까 어머니가 불교인인데 돌아가셨고, 자신은 천주교를 한 번 가보려고 한다고 한다. 그러면서 복음을 이야기했다.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것과 사람이 만물의 영장인 것과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신 것과 그리고 하나님을 어떻게 떠났는지에 대해서, 그리고 그 인간이 완전히 망해서 지옥가게 되고 죄인이 되고 마귀의 자녀가 되었는데 구원의 길이 없는데 하나님이 길을 제시하셨다. 하면서 제사했다. 가능하면 간단하게 전했다. "이 사실을 알고 만약 영접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하니깐 "그것 참 좋은 말씀이네요." 말씀하신다. "내가 지금 도와드릴 수 있는데 하겠습니까." 하니깐 한다고 하더라. 그분의 또 다른 옆에서는 장인성 목사님이 앉아계셨는데 어떻게 하는지 보고 계셨다.(웃음) 이런 사람에게 할 때는 정확하게 영접을 시킨다. "하나님. 나는 하나님을 잘 몰랐습니다. 귀신, 마귀 잘 모릅니다. 그래서 내가 온갖 잘못을 저질렀습니다.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그러나 지금 이 시간 전도자의 말을 듣고 예수님을 나의 하나님, 나의 주인, 나를 하나님 만나게 해주신 참 선지자로, 내 죄를 용서해주신 참 제사장으로, 나를 원수의 손에서 구해주신 참 왕으로 영접합니다. 내 마음에 오셨으니 내 마음의 왕좌를 영원토록 차지하시고, 영원토록 나를 다스려주십시오. 이제부터 하나님의 말씀과 그 뜻대로 살아가고 싶도록 저를 인도해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니깐 다 따라하고 아멘까지 했다. 이럴 때는 그분을 높여주고 인정해줘야 한다. 나보다 나이가 적지만 '선생님.' 하면서 말했다. "진심으로 하셨으면, 당신 속에 지금 하나님의 영이 들어가셨습니다. 선생님이 결혼하실 때, '이 여자면 되겠다.' 했던 그 시간부터 그분을 사랑하고 부부의 연이 시작된 것입니다. 그것을 받아들이는 시간이 사랑의 시작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영이신데, 요한복음 3장 6절에서 8절에 '바람이 임의로 불어서 내가 그 소리를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듯이 성령으로 난 사람은 모두 그와 같으니라.' 그 하나님은 영으로 계셨기 때문에 지금 당신이 초청을 받고 하나님의 영이 바람처럼 당신 속에 들어가셨습니다. 이제부터 집에 돌아가셔서 잘 때까지 이 기도만 해보면 어떤가요. '나는 하나님 자녀가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말만 반복해보세요. 그러면 제일 먼저 선생님의 마음에 찾아오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평안입니다. 그러면서 무엇인지 모를 기쁨이, 표현하기 어려운데 내 마음에 움트기 시작할 것입니다. 이제부터는 교회에 불신앙으로 '이 사람들은 어디서 이렇게 돈이 생겨서 이렇게 교회를 크게 잘 지은거야.' 하고 돌아다녔는데, 이제는 '여기도 하나님의 자녀들이 여기서 예배를 드리는구나.' 이런 마음이 들 것입니다. 그러면 당신은 구원받은 사람입니다. 그것이 증거입니다. 적대감이 들지 않고 그 안에 영이 통하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그런 느낌이 드는 것입니다. 또 있습니다. 만약 다른 사람을 만나는데 '진짜 믿는 사람이구나.' 하는 사람을 만나게 되면, 처음 만났는데 이야기하다가 오래전부터 사귄 사람처럼 가까워지는 느낌이 들면, 당신이 구원받은 사람이 맞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당신 속에 들어온 영과 그 사람 속에 있는 하나님의 영이 같은 영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서 "고맙습니다." 하고 헤어졌다. 그 사람 이름이 최인규이다. 옛날에 최인규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과 이름이 같아서 당신 이름 잊지 않겠다고 하니깐 그 분이 웃는다. 항상 명함을 가지고 다니는데 그날따라 명함이 없었다. 한번 줬으면 와보라고 했을 텐데. 여러분, 성경을 읽으면 그리스도의 비밀을 이렇게 정확하게 알 수 있다. 성경을 읽다가 예수님에 대해서, 하나님의 아들에 대해서 우리의 구주에 대해서 더 명확하게 알고 증거 할 수 있는 자가 되기를 축복한다. 요5:39을 보면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선생님 이제 가서 혹시 성경을 볼 수 있는데, 가서 사서 요한일서라는 책이 있다. 요한일서가 짧은 책인데, 30분이면 읽을 수 있기 때문에 하루에 한 번씩, 30분을 읽어봐라. 정말 하나님이 계신가. 예수님은 누구인가. 나는 정말 구원받았는가. 이와 같이 생각하면서 읽어보면 진짜 답을 얻게 될 것입니다. 이야기했다. 성경을 아직 읽기 시작 안 한 신 분은 요한일서부터 읽어보기를 바란다. 그러면 성경 전체를 이해하게 된다. 거기서 은혜 받기 시작하면 어떤 성경을 봐도 이해가 된다. 왜냐하면 저자가, 주인공이 같기 때문이다. 요20:31에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할렐루야. 성경은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밝히 우리에게 가르쳐주기 위해서 쓰여진 책이다. 구약은 메시아, 신약은 그리스도. 같은 말이다. 다만 히브리어이고 헬라어일 뿐이지 같은 말이다. 그 이름이 우리를 죄와 사단과 지옥에서 해방하신 이름이라는 사실은 성경은 증거하고 있다. 누구든지 참 제사장, 참 선지자, 참 왕이니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않는다. 요5:24의 말씀이다. 그 때부터 그리스도를 붙잡는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그의 방패가 되어준다. 딤후3:17의 말씀이다. 이 말씀은 하나님의 사람을 온전하게 한다고 했다. 바르게 한다고 했다. 부족함이 많은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붙잡는 순간 온전케 되는 축복을 누리게 되는 것을 믿기를 바란다. 말씀을 통해서 복

음에 집중하다가 온전케 되는 힘을 얻으라는 것이다. 얻게 되기를 축복한다.

(3) 이 말씀의 비밀을 한 가지 더 찾아보면 잠29:18에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미래를 볼 수 있게 된다. '목시가 없으면 백성이 방자히 행하나니 율법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느니라.' 이 율법은 말씀, 언약이다. 말씀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미래를 보여준다. 그래서 목시라고 표현했다.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미래와 길이 없으면 자기 마음대로 갈 수 밖에 없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 내 마음대로 하면 실수할 수밖에 없지 않은가. 그래서 우리는 말씀 속에서 길을 찾아야 한다. 시109:11에 말씀하신다. '내가 주께 범죄하려 하지 아니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니' 우리 교우들이 언약을 붙잡고 3오늘 하시는 분들은 알 것이다. 계속 목상하면서 내 마음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체험했기 때문에 너무 이해되는 것이다. 안 하고 있는 분들은 해보라. 너무 놀라운 일들이 일어난다. 말씀을 마음에 담으면 범죄하지 않는 길로 갈 수가 있는 것이다. 계10:3의 말씀이다.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 듣는 자 그 가운데 기록된 대로 지키는 자에게 복이 있다고 말한다. 말씀을 붙잡기를 바란다. 자신과 후대와 교회의 미래가 전부 말씀 속에 있음을 발견하게 될 것이다. 나에게 온 문제조차도 미래를 살리게 하는 하나님의 최고 방법임을 깨닫게 될 것이다. 하나님은, 내가 정말 언약과 말씀을 붙잡으면 바뀌 가신다. 그래서 말씀을 들어야 한다.

2. 그래서 우리는 말씀 속에서 나오는 미래를 보고 언약의 여정을 가야 한다. 미래를 알고 가면 흔들리지 않을 수 있다. 그렇다면 어떻게 언약의 여정을 가는가? 이번 렘넌트대회 때 주셨던 다섯 가지를 목상하였다. Covenant (언약), Vision(비전), Dream(꿈), Image(이미지), Practice(실천) 이다.

(1) 말씀 속에서 언약을 굳게 붙잡아야 한다. 언약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주신 우리에게 주신 언약이다. 성경은 전부 언약의 책이다. 구약은 옛날의 약속, 신약은 새로운 약속이다. 어떤 분은 성경 공부하다가 '언약이 무엇인가.' 하는데 구약 신약이 있고 언약이 있지 않은가. 귀여워도 모른다. 성경을 가지고 다니는데도 모른다. 그 주제가 누구인지 모르는 것이다. 왜 그 약속을 주셨는지 모르는 것이다. 그것을 모르면 가지고 다니면서도 허된 삶을 살 수밖에 없다. 참사랑가족들이 언약을 가지게 됨에 감사하다. 사실은 이 약속은 그리스도, 예수님을 말한다. 언약을 붙잡는다는 말은 곧 복음을 굳게 붙잡는다는 것이다. 복음으로 충분하고, 완전하고, 모든 것이 되도록 완전히 답을 내는 것을 말한다. 그래서 자꾸 질문할 때 '답 나왔어?' 하고 '답 안 나왔어?' 한다. 어떤 때는 기분이 굉장히 나쁘고, 어떤 때는 기분이 좋기도 하다. 답 나왔다고 하면 '나도 깨달았구나.' 하면서 기분이 좋지만, '아직도 못 깨달았어? 아직도 답 안 내렸어? 결론 안 나왔어?' 하면 굉장히 섭섭하다. 그래서 말할 때 조심해야 한다. 그리고 다시 한 번 생각해보아야 한다. 내가 진짜로 결론 냈는지. 그리스도로 결론 냈는가. 그러면 끝이다. 우리가 고백한대로 무슨 일을 당해도 괜찮다. 예수님은 그리스도, 나는 하나님자녀, 모든 문제 끝. 끝났다. 그리스도가 다 해결해버렸다. 다시 매여서 신음하고 고통 할 이유 없다. 주님이 다 해결하셨다. 그런데 받아들이는 사람만 효과를 받는데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만 죽으신 것이 아니다. 모든 인류, 지나간 인생, 지금의 인생, 앞으로의 인생을 위해서 죽으셨다. 그런데 받아들인 사람에게만 효력이 있는 것이다. 아멘하고 받아들이는 사람에게만 효력이 있는 것이다. 무디가 만년필과 볼펜시계 두 가지를 두면서 가져가세요. 하나가 어떤 아저씨가 '볼펜 아저씨 쓸 만하네?' 하면서 만년필을 가져가는 것이다. 시계를 아무도 가져가지 않는다. 그런데 초등학교 4학년 된 아이가 '아저씨, 진짜로 주는 거 맞죠? 내가 우리 아빠 갖다드릴게요.' 하면서 시계를 가져가려고 한니까 옆에 있는 사람들이 다 말리는 것이다. '야, 이게 얼마짜인데 가져 가나?' 한니까 '주인인 내가 주는 것인데 왜 말리세요? 주인인 내가 주는 데.' 한다. 하나님은 우리를 다 용서했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모든 것을 선물해주셨지만 이렇게 이 아이처럼 받아들이는 사람만 자기 것이 되는 것이다. '에이 자기가 쓸 거면서?' 하는 사람은 자기 것이 안 된다. 제발 만년필만 가져가지 말고 볼펜시계를 가져가기를 바란다.(웃음) 볼펜시계보다 더 귀한 것이 생명의 말씀, 영혼이다. 우리 영혼이 구원받은 것은 내 의, 공로, 돈, 지식, 능력이 아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평생 감사하면서 '내가 이렇게 놀라운 은혜를 받았는데 나는 무엇을 드릴까요.' 하면서 사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 안에서 봉사, 수고하는 일, 찬양대는 매주 주님 앞에 수고하는데 너무 은혜가 감사하다. 내 목소리가 가는 날 까지 주를 찬양하겠다. 꼭진주 양이 공부를 하고 있다. 이번에 찬양을 하는데 다락방찬양을 한다. 그 소리가 숙련이 되어간다. '고생한다. 공부 잘 되어서 정말 훌륭한 음악가 되어서.' 하면서 주머니에 있는 것 다 줘야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이 복음에 대해서 깊이 알게 되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축복한다. 복음이 아니면 안 된다는 사실을 굳게 붙잡고 이 때 부터 사실은 언약의 여정이 시작된다. 언약을 붙잡지 않으면 시작도 안 한다. 그러니까 다른 길을 가게 되는 것이다. 여러분은 언약의 길을 가게 되기를 축복한다.

(2) 이때부터 하나님이 주신 비전이 보이는 것이다. 하나님의 소원인 세계복음화를 마음에 품고 세계복음화의 방향이 무엇인지 발견하게 된다. 이것을 보는 것이다. 잠29:18에 말씀하신다. 목시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킹 제임스 성경에서 영어로 번역할 때 'Vision'이라고 번역한다. 비전이 없으면 백성이 망한다는 것이다. 꿈이 없으면 망한다는 것이다. 꿈이 없는 아이는 미래가 없는 아이이다. 꿈, 비전을 가져야 한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언약 속에서 나오는 세계복음화의 비전을 발견하는 것이다. 언약은 복음이다. 모든 사람에게 복음이 필요하고, 하나님은 이 시대에 모든 사람에게 복음이 전달되기를 원하시고 계신다. 모든 사람이 진리에 이르기를 원하시는 것이다.

(3) 이 비전을 발견하게 되면 꿈을 꾸게 된다. 그 때 생기는 꿈이 바로 우리가 말하는 Dream이다. 나만이 할 수 있는, 나의 전도, 나의 선교, 나의 헌신이 이 때 나오는 것이다. 내가 할 수 있는 세계복음화를 보게 되는 것이다. 세계복음화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 내가 어떻게 헌신할 것인지에 대한 미래를 보게 되는 것이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풀어야 할 드림이다. 기도할 때 '나 같은 사람만 있으면 우리 교회가 잘 될까. 우리 교회가 렘넌트 키우고, 100명 이상의 선교사를 파송하고, 복지운동을 계속 할 수 있을까? 나 같은 사람만 있으면 안 되겠다. 만약 우리 동네에, 내 집 옆에 빌립보가 살던 브리스길라 아굴라 가정 이사 왔으면 무엇을 하고 있을까? 그렇게 되면 우리 교회는 어떻게 될까? 내가 그 사람처럼 생각해보아야겠다.' 생각해야 한다. 이것이 바로 꿈이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야슨 같은 사람이 우리 교회에 왔으면 좋겠다.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 같은 사람이 왔으면 좋겠다.' 그렇게 개척교회 목사님들이 다 꿈을 꾸더라. 만나지 않아서.

(4) 그렇게 되면 날마다 말씀과 기도로 행복한 그림을 계속 그려다가 보면 그것이 바로 이미지이다. 나에게 와 있는 꿈을 구체화 시켜 나가는 것이 바로 이미지이다. 요셉이 해와 달과 열 한 별이 절하는 꿈을 꾸지 않았는가. 그것을 계속 마음에 영상을 그리면서 살았다. 강대국인 애굽과 주변에 작은 나라와 자기 민족을 살리는 꿈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 정말 그렇게 되었다. 그러면서 이것을 이미지로 만들어서 현장에서 매일 말씀을 붙잡고 24시간 기도했더니 진짜 그런 일이 일어난 것이다. 그 때 그 때 방향을 잡아나가는 축복을 계속 누리게 된다. 그것이 바로 성령의 인도이다. 이것이 다 연결되어 있다. 그러면 이것이 나의 작은 실천 속에서 작품으로 남게 된다는 것이다. 요셉이 여호와께서 함께 하심으로 축복을 누렸는데 그것이 최고의 노예라는 작품이 된 것이다. '하나님이 나를 노예로 보내셨구나. 좋다. 그렇다면 내가 노예로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겠다.' 그랬더니 어느 날 최고의 노예가 되었다. 그러니까 총무로 발탁된 것이다. 요셉이 한번도 총리 되겠다고. '나를 시키면 당신 집이 잘 된다.' 출마하거나, 요청하거나, 편지 쓴 적이 없다. 그냥 노예 일만 열심히 했는데, 감옥에서 죄수노릇 열심히 했는데 어느 날 감옥의 주인공이 되었다. 그랬더니 문이 열리고 작품이 쌓이니까 어느 날 하나님이 요셉을 성취의 자리로 인도하셨는데 그 자리가 바로 총리의 자리였다. 나는 총리가 되어서 좋은 것보다도, 노예 살이, 감옥살이 때와 같은 베이스로 총리직을 하는 것이 너무 훌륭하다는 생각이 든다. 사람이 어떤 자리에 가면 완전히 달라진다. 처음에는 여러분의 심부름꾼이 되겠다고 하면서 그 자리에 가면 완전히 달라진다. 그러니까 우리는 헛갈리는 것이다. 그런데 요셉은 변함이 없었다. 노예니까 그 자리에서는 그렇게 할 수 있었을 수 있다. 감옥에 갔는데 감옥살이 안 하면 되겠는가. 그런데 총리자리에 가셔도 여전히 한 것이다. 창45:5에 '형님들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나를 형님들보다 먼저 보내셨습니다. 당신들이 판 것이 아님니다.' 거기까지 깨닫는 크리스찬들이 되기를 바란다. 그러면 우리가 항상 행복하고 감사하게 된다. 이것이 Practice이다. 조금만 실천하고 꿈만 꾀봐라. 내가 우리 교회 십일조 제일 많이 하는 집사, 권사, 장로 되겠다고 꿈을 꾀봐라. 그러면 그 날이 진짜 올 수가 있다. 인생작품을 가지고 우리가 남겨야 하지 않겠는가. 하나님을 가장 기쁘게 하는 인생작품을 남길 만큼 기도하면서 언약의 여정을 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한다.

말씀을 마지쳤다. 우리는 미래를 알고 가야 한다. 미래에 대한 그림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미래에 대한 비전을 함께 품고 가야 한다. 온 교회가 붙잡을 미래를 다시 한 번 기도제목으로 품고 비전으로 삼기를 축복한다. 다시 한 번 확인한다. 100명 이상의 선교사를 파송하는 선교하는 교회가 우리의 비전이다. 복지로 지역을 살리는 교회가 우리교회 비전이다 렘넌트를 세워서 모든 현장에 서밋으로 파송하는 것이 우리 교회의 비전이다. 이 일을 위해서 우리에게 주신 오늘의 과제를 해가면서, 우리에게 주신 아름다운 성전을 완전히 하나님께 드리는 현장의 과제를 받아야 한다. 하고 나면 우리가 정말 꿈꾸는 일을 할 수가 있다. 부단 없이. 우리 성전이 237개 나라, 다민족을 살리는 성전이 되리라는 이미지를 그려보기를 바란다. 그 꿈을 꾸기를 바란다. 그러면서 날마다 이것을 두고 주시는 말씀의 흐름을 따라가기를 바란다. 하나님은 여기에 대해서 내가 할 수 있는 것, 나만이 할 수 있는 것을 보게 해주시는 것이다. 그것을 생각해야 한다.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일까. 나만이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일까.' 분명히 있는데 안 한다. '저 분은 할 수 있는데 안 하시네.' 말은 안 하지만 마음으로 생각한다. '저 분은 할 수 있는데.' 참사랑가족 여러분, 우리는 같은 복음 안에서, 같은 방향을 가지고 같은 말씀을 따라가는 복음 공동체이다. 같은 비전을 품고 가는 복음 공동체이다. 이것을 마음에 품고 원니스의 영적작업에 승리하기를 축복한다. 비전이 없는 백성은 망한다고 했다. 그러나 우리는 분명한 비전이 있지 않은가. 이 비전을 마음에 품고 언약의 여정을 가는 한 주님과 평생이 되시기를 축복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말씀 듣다가, 읽다가 이 말씀을 따라 살다가 그 속에서 붙잡는 비전을 붙잡을 수 있게 해주시고, 꿈을 꾸게 해주시고, 이미지를 그려보게 하시고, 그것을 하나하나 실천해보다가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고 하나님의 응답을 체험하고 하나님을 하시니 것을 보게 해주시기를 기도합니다. 그래서 참사랑 교우들을 통해서 이 지역과 민족, 세계 살리는 역사가 일어나게 축복해 주옵소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거기에 쓰임 받게 하여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